LEADING
Weekly
Market Insight

2013년 8월 12일

중국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개선 추세

- **중국, 유럽 경제지표 개선 불구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글로벌 증시 혼조세**

선진국 시장 조정, 남유럽반등, 이머징 시장 혼조

지난 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미 연준 관계자들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6월 이후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했던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은 조정을 보였다.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정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호주, 브라질 통화 강세

한편, 전전 주부터 이어진 중국과 유럽의 경제지표 개선을 통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컸던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호주달러, 브라질 헤알화 등 원자재 관련 통화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 및 유럽 경제지표의 개선 추세 지속 여부가 이들 원자재 가격 및 원자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이머징 국가의 주식시장의 회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회융자 총량 21개월 만에 최저수준

특히, 중국의 경우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며 Shibor 금리가 13%를 상회하는 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진 바 있어, 경기 회복 여부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하게 팽창된 신용시장의 거품의 조절 가능 여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주말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7월 사회융자 총량이 시장 전망치인 9,250억 위안을 하회하며 최근 21개월 만에 최저치인 8,088억 위안으로 감소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신규위안화 대출 및 M2 안정적 증가 추세

또한 사회융자 총량 중 은행권의 신규위안화 대출이 6,999억 위안으로 87%를 점하면서 201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과 사회융자 총량이 감소했음에도 M2증가율은 14.5%로 증가한 가운데 Shibor O/N 금리도 2.9%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흔히 그림자 금융으로 표현되는 부외(Off-Balance Sheet) 자산 비중이 감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덧붙여, 7월 외화표시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은 중국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자유화로 외화표시 자금 조달의 유인(誘因)이 감소된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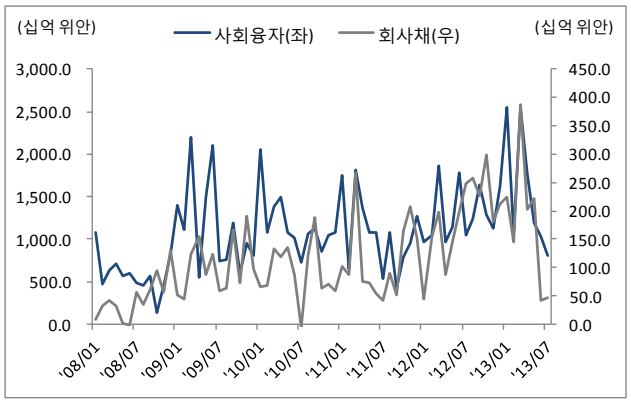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성회복과 함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국 및 유럽의 경제지표 개선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하반기에도 큰 폭의 변동성 없이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 밖에 없었던 이머징마켓의 반등도 기대 해 볼 수 있다.

Exhibit 1 중국 사회융자총액

(십억위안)	7 월	6 월	5 월	4 월	3 월	2 월
사회융자	809	1,038	1,186	1,762	2,550	1,070
위안화표시 대출	700	861	669	792	1,063	620
외화표시대출	-116	13	36	85	151	114
위탁대출	193	199	197	193	175	142
신탁대출	107	116	97	194	431	182
은행인수어음	-178	-262	-114	222	273	-182
회사채	46	41	222	203	387	145
비금융기업 주식 발행	13	13	23	27	21	16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 중국 사회융자 총액, 회사채 총액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역별 주식시장 전망

- **미국**

비둘기파인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를 비롯 연준 주요 인사들이 양적 완화 조기 축소를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지난 주 미국 증시는 조정을 보였다.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물가 등 경제 지표의 추가 확인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관련 이번 주에 대거 발표될 경제 지표들에 대해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금주에는 월요일 7 월 재정 수지 발표를 시작으로 화요일 7 월 소매판매와 수입물가, 6 월 기업재고, 목요일 7 월 CPI, 산업생산, 8 월 뉴욕 제조업,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NAHB 주택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히 소매 판매와 주택 관련 지표의 경우 5 월 이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지만, 전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요일에는 7 월 주택착공/허가 건수와 8 월 소비자 심리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 금 주 발표 예정된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FED 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미약한 미국 경제 회복 강도 및 이와 관련된 버냉키 의장의 후임자 지명 문제, 미국 정부 부채한도 협상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할 때 양적 완화 축소가 이뤄지더라도 축소 규모와 진행속도와 관련한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감안할 때 전 주에 이은 제한적 조정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

최근 유럽 지역의 경제 지표 개선세가 연이어 확인되며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해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2 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이번 주 14 일 예정돼 있다. 유로존 경제는 6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할 것으로 컨선세스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유로존 7 월 PMI 지표가 50 을 상회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신이 강해진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이미 유럽 지수에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어, 이번 주 유럽 지역에 '7 분기 만의 플러스 성장'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유럽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아시아**

지난주 발표된 7 월 경제지표 호전으로 중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 지표, 소비자 물가, 산업생산, 대외무역 지표가 모두 호전되어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다. 주말 발표된 지난달 위안화 신규대출규모는 6,999 억 위안으로 YoY +15%, M2 규모는 105.24 조 위안으로 YoY+14.5%로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였고, Shibor O/N 금리도 2.9%대까지 하락하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돈 가뭄에 대한 우려도 완화 되었다. 한편 금년 들어 급등한 차스닥지수에 대한 버블 우려와 보호예수 해제로 인한 수급 우려로 차스닥이 급락하여 메인보드 (상해종합지수)에 대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월 차스닥 보호예수 해제 물량 시총규모가 422 억 위안을 초과하여 현재 차스닥 시가총액의 7.3%의 비중을 차지한다.

- **한국**

금주 한국증시는 미국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는 부담스런 요인이나, 중국과 유럽 경제지표 개선 및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과 브라질, 호주 등 원자재 관련 통화 강세에 따른 이머징 시장 투자심리 개선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전주말 미국 ITC 의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판결은 미국 수입금지 대상는 모델들이 구형 모델에 제한된다는 점과 최근 삼성전자 주가의 상대적 약세흐름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국 증시도 이머징 증시의 반등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1. 미주

➢ 경제

지난 주에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 가시화 정도가 높아졌다. 7월 ISM 비제조업지수가 56.0으로 상승하여 2012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고, 6월 무역수지 적자가 342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9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6월 소비자신용이 138억달러로 예상치 150억달러 증가를 하회했지만 시장이 크게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생산, 소비, 주택 시장의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관찰됨에 따라 하반기 경기 개선에 대한 확신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 발표될 7월 경제 지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 될 것이다. 한편 지난 주 연준 총재들의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 중 비둘기파인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리처드 피셔 총재 마저 "경제 지표가 극심하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9월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안으로 양적 완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 주식

뉴욕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지난 6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다. 다우존스는 지난주 대비 1.5%, 나스닥 0.8%, S&P500은 1% 하락했다.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두고 피셔 달라스 연준 총재,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롯하트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내포하는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냉각된 것으로 보여졌다. 한편 중국 지표 호조로 금, 은과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 등 비철 금속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돼, S&P500 소재 섹터가 주간 기준 0.9% 상승하며 섹터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 주 카르텔 붕괴로 급락했던 비료 관련 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소재 섹터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모기지 관련 피소 이슈가 불거지면서 금융 섹터는 1.9%의 하락세를 보였고, 부진한 업황 우려가 지속된 통신서비스 섹터가 전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5% 하락하며 부진한 양상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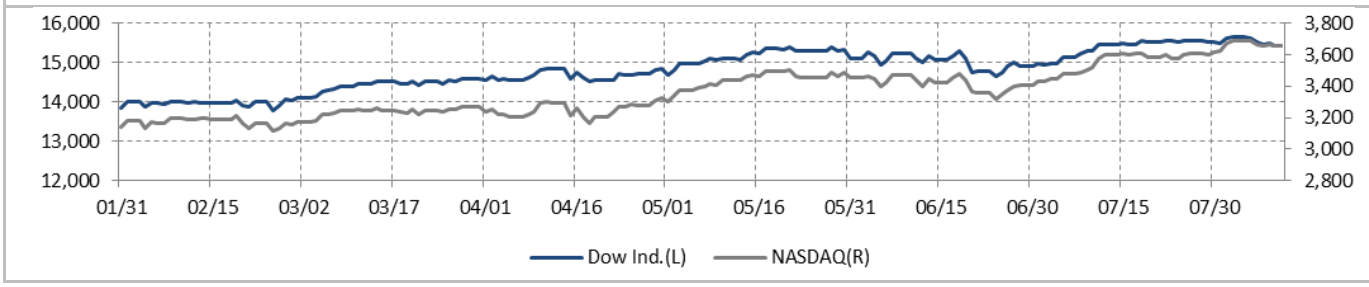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 우려가 여전하지만 지난 주 미국의 국채 발행에서 평균치를 상회하는 입찰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 가격은 상승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수요에 대한 수요가 견조함을 입증한 것이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국채 비중 하향을 권고하는 등 월가에서 국채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향후 국채 수요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편 연준의 불확실한 통화 정책 전망에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Exhibit 3 주간 경제 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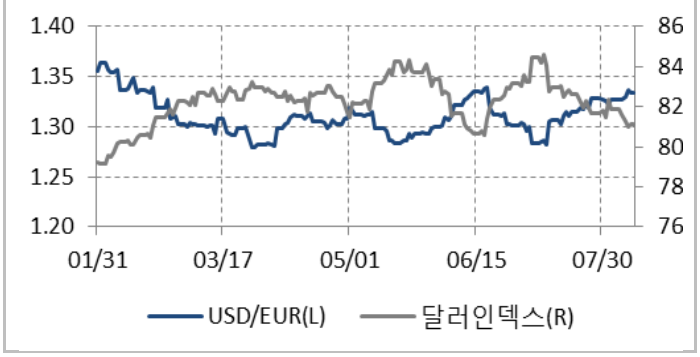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08-05	미국	ISM 비제조업지수		53.10	56.00	52.80	2.90	3.20
발표	2013-08-06	미국	무역수지	($십억)	-43.50	-34.20	-44.10	9.30	9.90
발표	2013-08-06	미국	JOLTs 신규 고용		3,895.00	3,936.00	3,907.00	41.00	29.00
발표	2013-08-07	미국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		0.20	-3.70		3.90
발표	2013-08-08	미국	소비자신용지수	($십억)	15.00	13.82	17.54	-1.18	-3.72
발표	2013-08-08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천)	335.00	333.00	328.00	-2.00	5.00
발표	2013-08-08	미국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천)	2,950.00	3,018.00	2,951.00	68.00	67.00
발표	2013-08-09	미국	도매 재고 전월비	(%)	0.40	-0.20	-0.50	-0.60	0.30
발표	2013-08-09	미국	도매무역 판매 MoM	(%)	0.70	0.40	1.60	-0.30	-1.20
예정	2013-08-13	미국	월간 재정수지	($십억)	-90.00		-69.60		
예정	2013-08-13	미국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3.50		
예정	2013-08-13	미국	수입물가지수 전월비	(%)	0.80		-0.20		
예정	2013-08-13	미국	소매판매 추정 전월비	(%)	0.30		0.40		
예정	2013-08-13	미국	기업재고	(%)	0.30		0.10		
예정	2013-08-14	미국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			0.20		
예정	2013-08-15	미국	제조업지수 (뉴욕주)		10.00		9.46		
예정	2013-08-15	미국	CPI (전년대비)	(%)	2.00		1.80		
예정	2013-08-15	미국	광공업생산 MoM	(%)	0.30		0.30		
예정	2013-08-15	미국	설비가동률	(%)	77.90		77.80		
예정	2013-08-15	미국	제조업 (SIC) 생산	(%)	0.30		0.30		
예정	2013-08-15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57.00		57.00		

Exhibit 4 미국 주요 지수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 달러 인덱스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6 미국 10 년 채권 수익률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7 미국 주요 섹터별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C World	376.8	-0.4	3.7	0.7	10.9
다우 종합	15,425.5	-1.5	0.9	2.0	17.7
NASDAQ	3,660.1	-0.8	4.0	6.5	21.2
S&P 500	1,691.4	-1.1	2.3	3.5	18.6
S&P 500 에너지	604.6	-1.0	1.3	2.3	13.4
S&P 500 소재	260.7	0.9	4.6	2.1	9.7
S&P 500 산업재	393.4	-1.2	3.1	5.4	19.7
S&P 500 경기소비재	475.9	-1.1	2.5	5.8	26.6
S&P 500 필수소비재	427.9	-0.5	1.6	0.8	18.6
S&P 500 헬스케어	589.3	-0.9	3.9	5.6	27.3
S&P 500 금융	275.0	-1.9	2.0	6.2	24.3
S&P 500 IT	513.8	-0.8	2.2	2.4	10.8
S&P 500 통신서비스	154.9	-2.5	-2.3	-7.1	6.1
S&P 500 유틸리티	198.5	-1.1	3.0	-1.6	11.7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8 미국 주요 종목 등락률

종목명	종가	수익률(%)			
	(USD)	(1 주)	(1 개월)	(3 개월)	(YTD)
PRICELINE.COM INC	969.9	6.8	8.1	31.5	56.3
MICROSOFT CORP	32.7	2.5	-4.8	0.1	22.4
EBAY INC	53.3	1.5	-2.1	-3.3	4.6
DIRECTV	62.3	1.4	-0.2	-1.1	24.2
FACEBOOK INC-A	38.5	1.2	51.1	42.4	44.6
ORACLE CORP	32.9	1.1	4.5	-2.3	-1.2
UNITEDHEALTH	72.9	0.9	7.3	17.6	34.5
BIOGEN IDEC INC	212.4	-6.8	-3.2	1.5	45.1
GILEAD SCIENCES	59.2	-4.1	8.9	12.2	61.2
IBM	187.8	-3.8	-1.8	-7.6	-1.9
CELGENE CORP	142.1	-3.6	14.0	15.8	81.1
JPMORGAN	54.5	-3.5	-0.7	11.2	24.0
COSTCO WHOLESALE	115.6	-3.1	2.0	5.9	17.1
INTEL CORP	22.5	-3.1	-2.7	-7.6	9.2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9 미국 주요 채권 지표

주요 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국고채 10년	2.58	-1.8	-4.6	68.1
국고채 5년	1.35	-0.3	-10.2	54.1
LIBOR 3M	0.26	-0.2	-0.4	-1.0
EUR-LIBOR 3M	0.15	-0.1	1.1	3.1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0 달러 환율 추이

주요 환율	종가	통화가치 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달러 인덱스	81.13	-1.0	-3.5	-2.4
USD/EUR	1.33	0.5	4.1	2.7
JPY/USD	96.21	2.8	4.0	5.6
CNY/USD	6.12	0.1	0.2	0.3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2. 유럽

➢ 경제

유로존 경기 반등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선진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 핵심국인 독일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며 산업생산, 공장 수주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경상수지 모두 개선세를 보였다. 영국 역시 광공업 생산, 제조업 생산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지난 주 발표된 6 월 유로존 소매 판매가 전월대비 0.5%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민간 소비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였고, 7 월 종합 PMI 지수가 50.5 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50.4 를 소폭 상회했다. 경기 확장 구간에 속하면서 유럽 지역의 바닥권 다지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줬다.

➢ 주식

지난 주 독일, 영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었으나, 글로벌 증시를 견인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불거지면서 영국 FTSE 100 지수는 1.0% 하락, 독일 DAX 지수는 0.8%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유럽 지역의 바닥권 다지기가 확인되면서 부채 문제 등으로 위험국에 속하는 남유럽 국가 중심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리스 ASE 지수가 4.4% 상승했고, 포르투갈 PSI 20 지수가 3.3%, 스페인 IBEX 35 지수가 1.9%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 동안 재정적, 정치적 문제로 상승하지 못한 지수가 지난 1 개월 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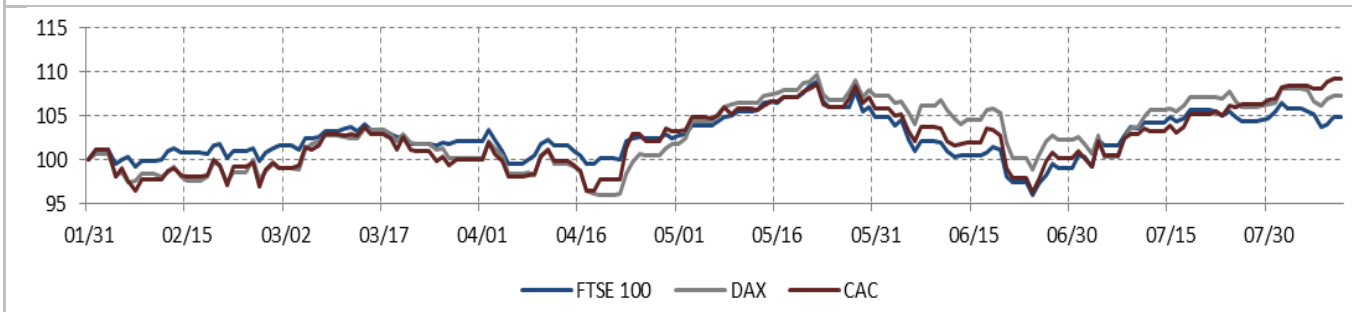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지난 주 경제 지표 개선세를 보인 선진 유럽 지역의 국채에 대해서는 위험 투자 심리가 강화되며 수익률이 소폭 상승한 반면 남유럽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10 년 국채물이 전주대비 각각 6.5bp, 7.4bp, 16.6bp 하락하며 국채 수요가 견조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주 독일과 중국의 무역 지표 개선에 따라 유로존 주변국의 전반적인 국채 시장이 상승 흐름을 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주에도 돌발 악재가 없는 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유럽 주변국 국채의 투자 매력이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로화는 경제 회복 전망에 7 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며 강세 흐름을 보였다.

Exhibit 11 유럽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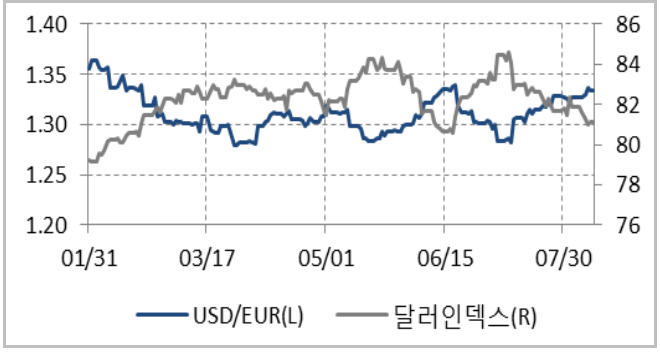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08-05	유로존	7월 PMI Composite		50.40	50.50	50.50	0.10	0.00
발표	2013-08-05	유로존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10.00	-4.90	-12.60	5.10	7.70
발표	2013-08-05	유로존	6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	-0.70	-0.50	1.10	0.20	-1.60
발표	2013-08-06	영국	6월 광공업생산 MoM	(%)	0.70	1.10	0.00	0.40	1.10
발표	2013-08-06	영국	6월 제조업 생산 전월비	(%)	1.00	1.90	-0.70	0.90	2.60
발표	2013-08-06	독일	6월 공장수주 전월비	(%)	1.00	3.80	-0.50	2.80	4.30
발표	2013-08-07	독일	6월 산업생산 SA MoM	(%)	0.30	2.40	-0.80	2.10	3.20
발표	2013-08-08	독일	6월 무역수지	(십억)	15.00	16.90	13.60	1.90	3.30
발표	2013-08-08	독일	6월 경상수지	(십억)	16.00	17.30	11.20	1.30	6.10
발표	2013-08-09	프랑스	6월 광공업생산 MoM	(%)	0.30	-1.40	-0.30	-1.70	-1.10
예정	2013-08-13	독일	CPI (전년대비)	(%)	1.90		1.90		
예정	2013-08-13	영국	CPI (전년대비)	(%)	2.80		2.90		
예정	2013-08-13	유로존	산업생산 SA MoM	(%)	1.10		-0.30		
예정	2013-08-13	독일	ZEW 서베이 (예상)		38.50		36.30		
예정	2013-08-14	프랑스	GDP (전년동기대비)	(%)	-0.10		-0.40		
예정	2013-08-14	독일	GDP NSA 전년대비	(%)	0.70		-1.40		
예정	2013-08-14	프랑스	CPI (전년대비)	(%)	1.00		0.90		
예정	2013-08-14	유로존	GDP SA 전기대비	(%)	0.20		-0.20		
예정	2013-08-14	유로존	GDP SA 전년대비	(%)	-0.80		-1.10		
예정	2013-08-16	유로존	ECB 경상수지 SA	(십억)			19.60		
예정	2013-08-16	유로존	경상수지 NSA	(십억)			9.50		
예정	2013-08-16	유로존	CPI (전년대비)	(%)	1.60		1.60		

Exhibit 12 유럽 주요 증시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3 유로화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4 주요국 채권 금리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5 유럽 주요국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EMU	93.1	0.7	5.9	2.1	9.4
FTSE EUROTOP 100	2,496.6	0.2	3.1	-1.0	7.4
Euro Stoxx 50	2,825.6	0.5	6.2	1.4	7.2
영국 FTSE 100	6,583.4	-1.0	1.2	-0.6	11.6
독일 DAX	8,338.3	-0.8	3.4	0.7	9.5
프랑스 CAC 40	4,076.6	0.8	6.1	3.1	12.0
이탈리아 FTSE MIB	17,186.6	2.4	9.6	-0.6	5.6
스페인 IBEX 35	8,735.5	1.9	9.3	2.2	7.0
포르투갈 PSI 20	5,966.7	3.3	7.8	-4.9	5.5
그리스 ASE	956.9	4.4	16.8	-7.5	5.4
스위스 SPI	7,553.7	0.3	0.4	-1.7	20.1
러시아 RTS	1,328.3	-0.6	4.2	-7.1	-13.0
터키 ISE 100	73,544.8	-0.7	3.5	-17.9	-6.0
남아공 TOP40	37,314.0	0.3	6.1	4.9	7.2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6 유럽 주요 종목 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 bn)	수익률(%) (1 주)	(1 개월)
독일	COMMERZBANK AG	금융	12.0	16.0	29.3
영국	EVRAZ PLC	소재	2.4	9.3	9.4
프랑스	ALCATEL-LUCENT	IT	6.3	9.1	42.6
영국	KAZAKHMYS PLC	소재	2.3	8.6	9.2
룩셈부르크	ARCELORMITTAL	소재	22.6	7.5	12.5
영국	AGGREKO PLC	산업재	7.1	7.4	-5.5
프랑스	CREDIT AGRICOLE SA	금융	27.3	6.9	20.6
영국	ADMIRAL GROUP PLC	금융	5.3	-8.3	-7.5
영국	HSBC HOLDINGS PLC	금융	205.5	-5.9	-2.2
영국	STANDARD LIFE PLC	금융	13.5	-5.6	-4.1
독일	MERCK KGAA	헬스케어	34.9	-5.3	3.3
프랑스	RENAULT SA	경기소비재	23.5	-5.1	3.1
독일	RWE AG	유틸리티	17.7	-4.9	-4.3
독일	BASF SE	소재	79.7	-4.7	-7.1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7 유로화 환율 / 주요국 채권 지표

주요 환율/채권	종가(%)	변동률(%, bp)		
		(1 주)	(1 개월)	(3 개월)
USD/EUR	1.33	0.5	4.1	2.7
영국 10년	2.46	3.5	4.5	56.9
독일 10년	1.68	2.9	2.2	30.0
프랑스 10년	2.23	3.6	-1.3	27.8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8 남유럽 채권 지표

주요국 채권	종가	변동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이탈리아 10년	4.19	-6.5	-26.2	29.5
스페인 10년	4.49	-7.4	-31.3	29.4
포르투갈 10년	6.52	1.9	-15.2	109.9
그리스 10년	9.61	-16.6	-124.1	12.4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3. 아시아

➢ 경제

지난주 발표된 7 월 경제지표 호전으로 중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서비스 PMI 가 54.1 로 전월 대비 0.2 포인트 상승하여 4 개월 만에 반등을 하였고 HSBC 서비스업 PMI 도 전월과 같은 수준인 51.3 을 기록하여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서비스업의 경기 개선을 나타냈다. 전월 대외무역 역시 크게 개선되어 7 월 무역수지는 178.2 억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전년대비 5.1%와 10.9%을 기록하여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해외국가의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 회복, 원자재와 자본재에 대한 국내 내수 수요 증가와 정부의 수출입 기업에 대한 정책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7% 상승하여 우려와 달리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고 산업생산 증가율 YoY +9.7%,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YoY +20.1%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였다. 지난달 위안화 신규대출규모는 6,999 억 위안으로 YoY +15%, M2 규모는 105.24 위안으로 YoY+14.5%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돈 가뭄에 대한 우려가 완화 되었다.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60~70 조 엔의 현재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주에는 일본 산업생산과 기계수주 지표 발표가 있다.

➢ 주식

지난주 중국증시는 7 월 주요지표 개선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해종합지수가 2050 선을 돌파하였다. 올해 들어 급등한 차스닥지수가 주중 한때 급락하였지만 메인보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홍콩증시는 미국 양적 완화 조기종료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중국발 지표 호조로 반등하여 항셍지수는 전주 대비 1.7% 하락하였다. 일본증시도 미국 Fed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 지속, 엔화 강세 및 정부의 추가 부양책 부재에 대한 실망감으로 닛케이지수는 전주 대비 6% 가까이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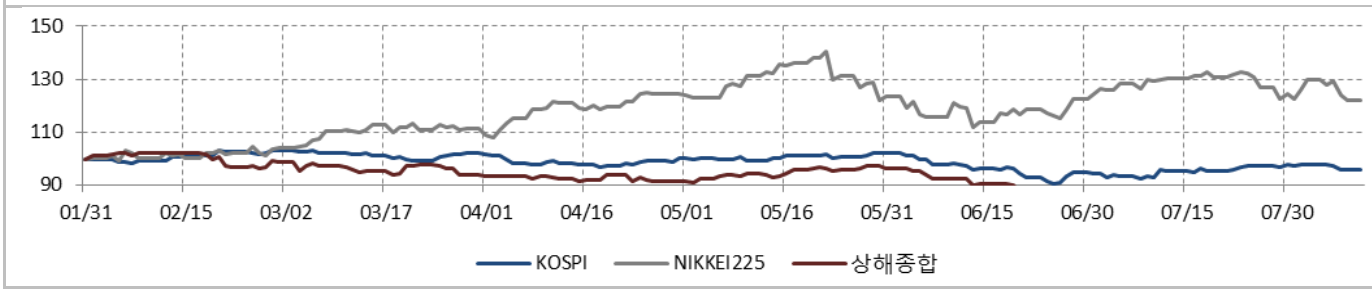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미국 양적 완화 조기종료 우려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위안화 환율은 6.11 대로 하락하여 19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엔화도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강세를 보여 엔/달러 환율은 96 엔 대로 하락하였다.

Exhibit 26 주요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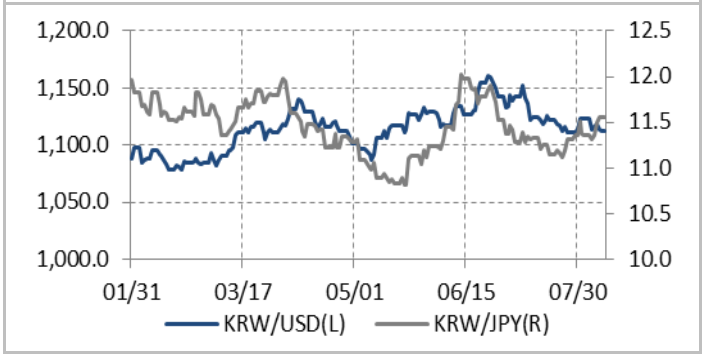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08-05	중국	HSBC/Markit 서비스 PMI			51.30	51.30		0.00
발표	2013-08-08	일본	BoP 경상수지	(십억)	400.00	336.30	540.70	-63.70	-204.40
발표	2013-08-08	일본	무역수지 BoP 베이시스	(십억)	-128.70	-139.20	-906.70	-10.50	767.50
발표	2013-08-08	중국	무역수지	($십억)	26.90	17.82	27.12	-9.08	-9.30
발표	2013-08-08	중국	수출 YoY	(%)	2.00	5.10	-3.10	3.10	8.20
발표	2013-08-08	중국	수입 YoY	(%)	1.00	10.90	-0.70	9.90	11.60
발표	2013-08-08	일본	일본은행 정책금리						
발표	2013-08-09	중국	CPI (전년대비)	(%)	2.80	2.70	2.70	-0.10	0.00
발표	2013-08-09	일본	소비자기대지수		45.00	43.60	44.30	-1.40	-0.70
발표	2013-08-09	중국	고정자산(농촌제외) YTD YoY	(%)	20.00	20.10	20.10	0.10	0.00
예정	2013-08-12	한국	수출 물가 지수 MoM	(%)			2.60		
예정	2013-08-12	한국	수출 물가 지수 MoM	(%)			-2.00		
예정	2013-08-12	일본	GDP 명목 SA QoQ	(%)	1.00		0.60		
예정	2013-08-12	일본	광공업생산 MoM	(%)			-3.30		
예정	2013-08-12	일본	설비가동률 MoM	(%)			2.30		
예정	2013-08-13	일본	기계수주 전월비	(%)	-7.00		10.50		
예정	2013-08-14	한국	실업률	(%)	3.20		3.20		
예정	2013-08-15	일본	Cabinet Office Monthly Economic Report for August		0.00	0.00	0.00	0.00	0.00
예정	2013-08-16	한국	PPI 전년비	(%)			-1.40		

Exhibit 27 아시아 주요 증시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8 원화 환율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99 한국 국고채 3 년 VS 일본 10 년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0 아시아 주요국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sia Pacific	133.9	-1.3	1.1	-5.6	3.5
MSCI EM	951.4	-0.4	3.9	-9.5	-9.8
한국 KOSPI	1,880.7	-2.2	3.1	-3.3	-5.8
일본 NIKKEI 225	13,615.2	-5.9	-5.6	-6.8	31.0
중국 상해종합	2,052.2	1.1	2.2	-8.7	-9.6
홍콩 항생	21,807.6	-1.7	4.3	-6.5	-3.7
호주 ASX 200	5,055.2	-1.2	3.1	-2.9	8.7
뉴질랜드 NZX 50	4,533.6	-1.1	-0.5	-2.6	11.5
인도 SENSEX 30	18,789.3	-2.0	-2.6	-6.4	-3.3
싱가포르 STI	3,229.9	-0.7	1.3	-6.2	2.0
태국 SET	1,432.3	0.8	3.2	-11.7	2.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640.8	0.0	3.6	-9.1	7.5
필리핀 PSEi	6,404.2	-2.0	1.5	-11.8	10.2
베트남 호치민	500.6	1.2	3.3	3.0	21.0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1 아시아 주요 종목 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 bn)	수익률(%) (1 주)	(1 개월)
중국	GREAT WALL MOTOR CO LTD-A	경기소비재	19.7	19.5	21.4
중국	INNER MONGOLIA BAOTOU STEE-A	소재	11.1	16.7	21.2
중국	GUANGZHOU AUTOMOBILE GROUP-A	경기소비재	7.9	15.7	-1.3
중국	KANGMEI PHARMACEUTICAL CO-A	헬스케어	8.0	8.4	8.7
중국	SAIC MOTOR CORPORATION LTD-A	경기소비재	23.9	6.9	-1.4
중국	JIANGSU HENGRUI MEDICINE C-A	헬스케어	8.0	6.7	28.3
중국	CHENGDU DR PENG TELECOM-A	통신서비스	3.8	6.3	30.9
일본	INPEX CORP	에너지	15.5	-9.7	-10.5
일본	SOFTBANK CORP	통신서비스	77.7	-9.6	8.3
일본	TOKYO GAS CO LTD	유틸리티	13.6	-7.6	-7.3
일본	SEVEN & I HOLDINGS CO LTD	필수소비재	32.9	-7.5	-9.1
일본	EAST JAPAN RAILWAY CO	산업재	31.6	-7.4	-7.7
한국	SK INNOVATION CO LTD	에너지	11.8	-6.9	2.5
일본	JAPAN TOBACCO INC	필수소비재	69.8	-6.3	-9.9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2 아시아 주요 채권 지표

주요 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한국 국채 5년	3.22	-5.4	-3.0	56.3
일본 10년	0.75	-6.6	-10.3	6.0
중국 10년	3.83	11.1	30.9	39.8
호주 10년	3.71	-8.2	-12.8	47.7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0 달러 환율 추이

주요 환율	종가	통화가치 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KRW/USD	1,112.30	1.03	2.13	-0.53
JPY/USD	96.21	2.84	4.02	5.62
CNY/USD	6.1220	0.13	0.20	0.32
AUD/USD	1.09	3.39	-0.05	-8.17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한국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1900P 회복 후 추가 상승 모멘텀 부재로 한국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및 지역 연준 총재들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관련 언급에 따른 부담과 외국인의 IT 섹터에 집중된 매도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자동차와 화학주에 대한 순매수를 지속하였으나, 전체 순매도 대금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연기금은 3500 억 이상 순매수에 나서며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지속했다. 한편, 주초 약세를 보였던 증시는 주 후반 중국 무역수지와 산업생산 호조에 힘입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지수가 1900P 를 상회한 이후 주식형 펀드자금이 주간기준 3820 억 유출되며 박스권 장세 부담을 이어갔다.

Exhibit 39 증시 주변자금 현황

(십억원)	Close	1W(△)	1M(△)	3M(△)	6M(△)	YTD(△)
고객예탁금	18,148.7	-43	1,053	-466	-156	134
국내 주식형 펀드	91,960	-382	-138	577	-1,381	-2,427
신용융자(KSE+KOSDAQ)	4,603	60	71	-104	458	691
MMF	69,652	1,341	-13,635	3,485	-9,913	5,982

Source: 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0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누적, KSE+KSQ, 십억원)	주간	월간	3 개월	6 개월	YTD
외국인	-447.1	1,392.6	-2,776.9	-6,623.7	-8,565.6
기관투자가	202.2	753.9	3,735.8	9,010.1	10,054.4
(연기금)	356.5	1,458.0	2,971.5	5,303.8	6,560.7
개인	298.9	-1,948.2	-617.5	-1,304.0	-223.6
기타	-54.1	-198.3	-341.4	-1,082.4	-1,265.3

Source: 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1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 변동

섹터	주간수익률(%)			투자자매매동향 (5 일 누적, 십억원)		
	한국	MSCI AC	편차	기관	외국인	개인
전체	-2.0	-0.4	-1.5	121.2	-370.3	298.2
에너지	-4.7	-0.6	-4.0	-96.3	40.3	53.5
소재	-1.9	1.6	-3.6	-14.6	41.0	-25.2
산업재	-0.9	-0.5	-0.5	-14.8	13.3	-1.0
경기소비재	-2.3	-0.9	-1.4	-88.4	67.6	40.8
필수소비재	-2.5	-0.4	-2.1	18.7	-75.2	57.3
의료	2.3	-0.3	2.5	40.7	7.1	-19.4
금융	-1.7	-0.6	-1.1	89.4	-81.7	-10.1
IT	-2.4	-0.9	-1.6	169.9	-391.2	228.4
통신서비스	-2.7	-0.4	-2.3	-13.4	7.9	6.4
유틸리티	1.1	-0.7	1.7	30.0	0.6	-32.5

Source : IBES, 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2 주간 투자주체별 주요 순매수 종목

주간 기관 순매수		주간 외국인 순매수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LG전자	108.5	현대차	54.6
삼성전자	64.0	LG화학	53.4
LG디스플레이	48.2	롯데케미칼	44.4
한국전력	47.8	SK텔레콤	40.9
KCC	38.0	현대중공업	34.0

Source : 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43 주간 투자주체별 주요 순매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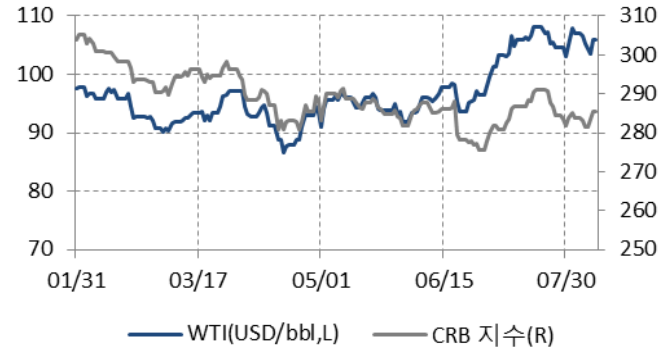
주간 기관 순매도		주간 외국인 순매도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SK이노베이션	-65.0	삼성전자	-398.3
SK텔레콤	-53.8	KT	-42.1
삼성물산	-53.6	우리금융	-36.8
현대차	-51.2	KCC	-33.4
SK하이닉스	-50.0	삼성엔지니어링	-31.2

Source : FnGuide, 리딩투자증권

4. 원자재 가격동향

미국 양적완화 부담이 가시화 되며 WTI 는 0.9% 하락 마감하였다. 금과 은은 소폭 상승 하였으며 중국 무역지표와 산업생산 개선과 함께 유로존 제조업 지표 호전으로 비철금속 가격은 상승하였다.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은 각각 3.9%, 4.2%, 4.9%, 3.4% 상승을 보였다. 한편 작황호조와 미국 주요 투자은행의 원자재 부당거래를 제제로 옥수수와 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Exhibit 44 원유(WTI) 와 CRB 상품 지수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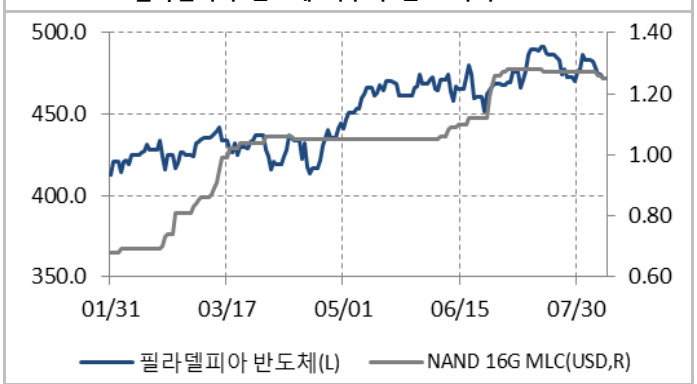
Exhibit 45 금과 LME 니켈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46 옥수수와 대두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4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낸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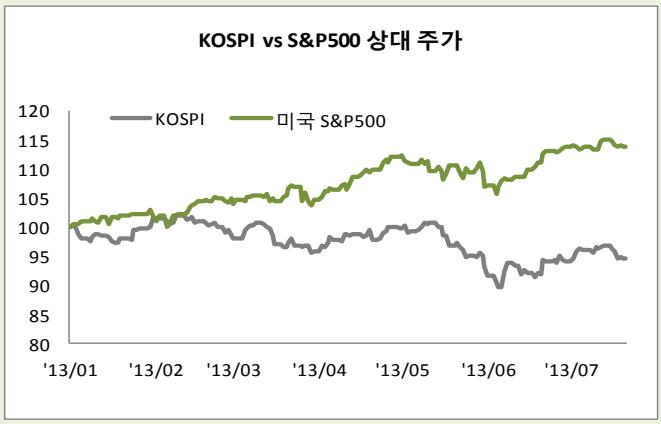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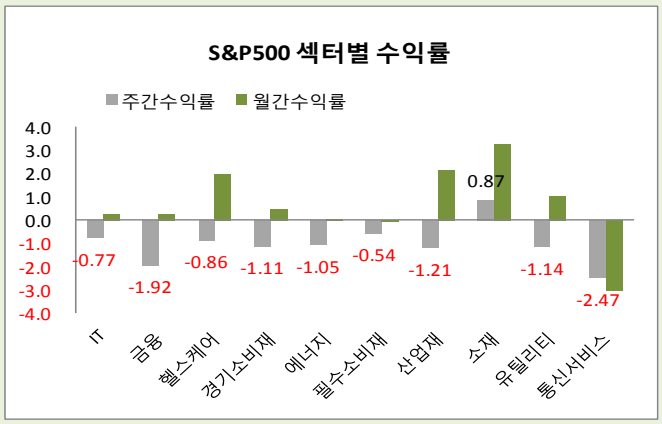
Exhibit 48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주요 원자재	종가 (USD)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WTI(NYMEX)	106.0	-0.9	-0.5	10.3	15.4
Brent(ICE)	108.2	-0.7	0.5	4.9	1.8
천연가스(NYMEX)	3.2	-3.5	-12.3	-18.9	-10.2
금(NYMEX)	1,312.1	0.1	5.0	-8.9	-22.2
은(CME)	20.4	2.5	6.5	-13.9	-32.8
구리(LME)	7,275.0	3.9	6.6	-1.4	-8.3
아연(LME)	1,944.0	4.2	2.4	4.6	-6.5
니켈(LME)	14,680.0	4.9	7.5	-4.4	-14.0
알루미늄(LME)	1,871.0	3.4	2.9	0.1	-9.7
CRB 상품지수	285.4	0.6	-0.3	-1.1	-3.3
밀(CBOT)	647.3	-3.8	-6.6	-11.3	-21.1
옥수수(CBOT)	453.3	-2.3	-13.1	-14.4	-24.4
대두(CBOT)	1,182.3	0.1	-8.0	-1.9	-9.2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471.8	-2.4	-1.0	1.3	22.8
NAND 16Gb MLC	3.0	-0.3	-0.3	0.0	57.1
DDR3 1G 1333MHz	1.3	-1.6	-2.3	19.0	86.6
Baltic Dry Index	1,001.0	-6.0	-11.4	13.2	43.2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5. 미국 섹터/종목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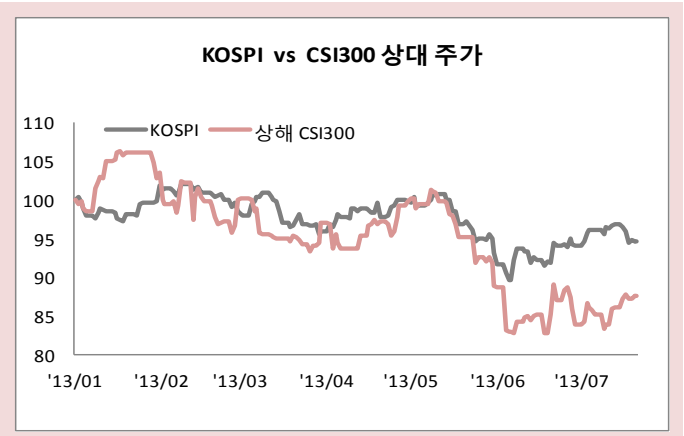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에너지	엑슨모빌	XOM	-1.3	■ **엑슨모빌,** 동사와 BP 등 글로벌 빅오일 기업들의 과도하게 큰 규모가 성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부각. 현상 유지를 위해서도 유정에서 1 배럴을 퍼낼 때마다 새로운 1 배럴의 유전을 확보해야 하고, 성장하려면 그 이상의 유전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 상당기간 유전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동사는 해서 최근 들어 투자확대에 나서 금년 자본지출은 약 410 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음. 한편 동사는 ConocoPhillips' oil sands 의 지분 $720mn 을 매입 / 동사에 대해 The Street Ratings 의 애널리스트는 A 등급의 '매수'의견 제시. 실적이 부정적으로 발표되었지만, 다양한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세을 높게 평가했고 밸류에이션 매력과 순이익 증가 기대가 있어 향후 수익성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제시
	셰브론(CVX)	CVX	-2.0	
	슐럼버그(SLB)	SLB	-2.9	
소재	몬산토	MON	-1.2	■ **포타쉬**, 전 주 카르텔 붕괴로 비료 가격 하락 우려로 급락했던 비료 관련주가 지난 주 반등에 성공. 하지만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몰린 것으로 보임. 비료 가격은 현재보다 약 25%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바닥권 매수를 노릴 수도 있으나, 포타쉬, 모자이크 등 비료 관련 주식에 대한 노출을 줄일 것을 권고. 카르텔 붕괴 이후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따라서 비료 관련 주식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기 어려울 것 ■ **S&P500 소재,** 중국 지표 호조로 금, 은과 비철 금속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돼 S&P500 소재 섹터가 주간 단위로 0.9% 상승하며 섹터 내 1 위 차지
	모자이크	MOS	3.7	
	포타쉬	POT	3.5	
산업재	GE	GE	-1.8	■ 메킨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 의료 장치, 우주 항공 산업 등의 '지식 집약적' 제조업 부문에서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제시함 ■ **보잉,** 1) 에어버스에 이어 보잉도 중국 현지에 조립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2) 보잉의 방산 부서에 따르면 최근 640mn 달러에 달하는 14 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
	캐터필러	CAT	0.2	
	보잉	MMM	-2.4	
경기소비재	아마존 닷컴	AMZN	-2.3	■ **아마존닷컴, 제프 베조스 CEO, 워싱턴포스트 인수.** 제프 베조스 CEO 는 개인 자격으로 이번 인수를 진행. 올해 말까지 현금으로 인수대금을 지불할 예정. 인수가격은 2 억 5 천만달러(약 2 천 786 억원). 워싱턴포스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최초 보도한 유명한 언론사이지만 최근 광고 매출 하락과 구독자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음 ■ **테슬라자동차,** 투자회사 도허티앤코의 안드레아스 제임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주가를 90 달러에서 200 달러로 대폭 상향조정. 테슬라의 최대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 동사는 올해 들어 4 배 가까이 상승. 한편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84 달러로 제시했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에 대한 의문감을 제기하기도 함
	스타벅스	SBUX	-1.9	
	테슬라자동차	TSLA	10.9	
필수소비재	월마트	WMT	-2.3	■ **JC 페니, CEO 교체하려다 퇴짜. 소로스 자금 인출설에 시달림** 최근 씨티그룹은 JC 페니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음.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한편 JC 페니는 지분의 17.74%를 소유한 이사회 맴버인 애크먼이 새로운 CEO 를 찾고 있다고 밝혀 주가가 급락한 바 있으나, 이사회 멤버들은 이러한 판단이 성급하다고 여겨 동의하지 않았다고 함 ■ **P&G**, 1 년 전 대비 5,000 명의 인력 감축 단행. 향후 비제조업 인력의 추가적 감축 예상
	P&G	PG	0.4	
	제이시페니	JCP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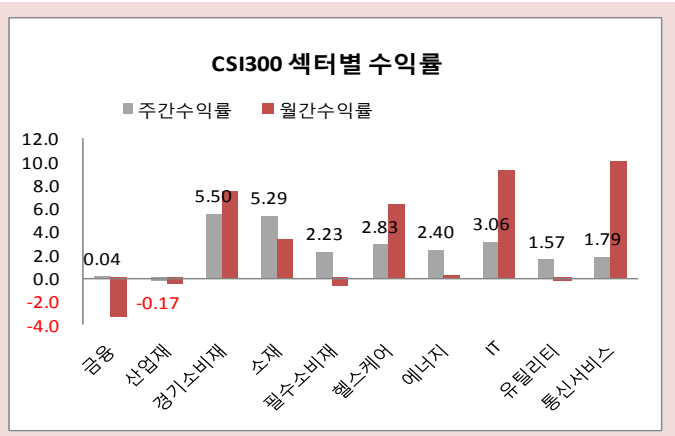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헬스케어	존슨앤존슨	JNJ	-2.2	■ **S&P500 제약,** 11 개 업체의 2 분기 합산 매출액은 644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 영업이익은 150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 한편 제네릭 의약품 전문 업체인 악타비스의 글로벌 매출이 6.7% 증가하며 시장컨스서스를 상회해 주목되었음. 악티비스, 셀진, 길리어드, 암젠, 4 개 업체의 합산 2 분기 매출액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
	화이자	PFE	-0.5	
	악티비스	ACT	-1.5	
금융	웰스파고	WFC	-2.8	■ **S&P500 금융주**, 대형 금융주들의 제소 문제로 한 주간 1.9% 하락하며 부진했음 ■**뱅크오브아메리카,** 미 정부가 동사에 대해 지난 2008 년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담보증권을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로 제소. 하지만 이익 성장 폭이 커,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충분히 상쇄했고, 이번 소송 역시 펀더멘털에 큰 악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 한편 2013F PBR 은 0.7 배로 경쟁 은행 대비 매력적이나, 2013F ROE 가 약 5%로 자산의 질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임. ■ **JP 모건,** 모기지 채권과 관련해 피소될 가능성이 제기. 최근 몇 주 동안 JP 모건체이스가 2008 년 인수했던 베어스턴스 투자은행의 모기지 채권 관련 부정에 대한 조사가 가속됨
	JP모건	JPM	-3.5	
	뱅크오브아메리카	BAC	-2.6	
IT	애플	AAPL	-1.7	■ **페이스북,** 빠르면 올 가을 스마트폰과 웹에서 15초 가량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비디오 광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페이스북 비디오 광고 비용은 하루에 약 2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여 그만큼 광고가 이목을 끌 수 있음을 광고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수익성이 좋은 온라인 비디오 광고를 출시하기 위해 몇 개월 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짐 ■ **세일즈포스닷컴,** 최근 골드만삭스는 S&P500 기업들의 주가가 연말까지 평균 4%, 향후 1 년간 평균 7% 상승할 것을 예상하면서, 그 동안 골드만삭스의 목표가를 상회한 종목을 제시. 그 중 세일즈포스닷컴이 골드만삭스 목표가의 37.1%를 상회했음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긍정적 흐름 이어갈 것을 언급. 최근 야후, 오라클, EMC 와 동사는 기존의 사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 모바일, 분석학, 클라우드 관련 업체들을 앞다퉈 인수하고 있음
	페이스북	FB	1.2	
	세일즈포스닷컴	CRM	-0.7	
통신서비스	AT&T	T	-2.7	■ **AT&T,** 올해 배당수익률 약 5%로 예상되며 하반기 배당 매력이 이목을 끌 수 있으나 레버리지와 인수 합병 활동에 따른 리스크가 있음. 한편 동사는 하반기 인디애나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325mn 을 투자할 계획. 또 4G LTE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 확장할 것이라 함. ■ **T 모바일,** 지난 2 분기에 두 번째로 많은 신규가입자를 유치. 4 월부터 아이폰 판매를 시작하게 된 데다, 2 년 계약에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선보인 게 큰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 이로써 미국 이동통신 업계의 경쟁이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버라이즌컴즈	VZ	-1.9	
	T 모바일 US	TMUS	2.1	
유틸리티	듀크에너지	DUK	-1.4	■ **듀크에너지,**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동사에 대해 '시장비중상회'로 제시. 목표가는 $78 로 upside potential 은 약 11%. 씨티그룹도 기존의 '중립' 등급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 UBS 는 동사를 'Top list' 등급으로 제시. 반면 Zacks 에서는 동사의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제시. 목표가는 $75. 종합적으로 9 명의 애널리스트가 중립, 8 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를 제시했으며 목표가 컨센서스틑 $74.77. 동사의 배당 수익률은 약 4.5%로 하반기 고배당주 매력 부각되면, 이에 따른 시세 차익도 노려볼 만함. *** 펀더멘털&밸류에이션 점검 :** 현재 PBR 은 경쟁사 평균 1.6 대비 매력적인 1.2 기록 중. 하지만 ROE 는 경쟁사 평균 9.9% 대비 낮은 6.3% 기록이지만 상대적으로 매출 성장률이 높아 향후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 순이익률은 8.1%로 경쟁사 평균에 해당. 그러나 동사의 5 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최고치를 기록한 2011 년 11.7% 대비 낮은 편에 속함. 설비 투자 등 투자 비용이 많지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향후의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장기적으로 매력이 있음
	서던	SO	-1.1	
	엑셀론	EXC	2.1	

Any Comment or News

- ✓ 컨설팅 업체 매킨지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5가지 요소로 1) 셰일 에너지, 2) 교역 확대, 3) 빅 데이터, 4) 인프라 투자, 5) 교육 체계 재정비를 꼽았음.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미국시각)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침해 건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음. 대상이 된 제품은 삼성의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이날 결정으로 오바마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됨
- ✓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달러화 표시 채권 비중이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Fed의 자산 매입 축소 움직임에도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이 마지막 매도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6. 중국 섹터/종목 뉴스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석유화학	페트로 차이나	0857	-3.5	■ 페트로 차이나, 프랑스 토탈, 말레이시아 석유 및 남이라크 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이라크 할파야 유전 제 2 기의 건설을 시작. 할파야 유전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원유 생산능력은 일 평균 20 만 배럴이 될 것으로 판단. ■ 시노펙 자회사 Sinopec-Chemical 이 러시아 고무생산 공장의 25% 지분을 매입. 이는 시노펙의 첫 해외 화학공업분야에 대한 사업으로 국제화 시작을 알림.
	시노펙	0386	-2.8	
	시누크	0883	-1.5	
리테일	궈메이 전기	0493	1.3	■ 절전형 가전제품의 보조금 정책이 지난 5 월말 만료후 TV 등 가전제품 판매량 감소세를 보임, 업계에서는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10 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
	우마트 스토어스	1025	-3.1	
	SaSa	0178	3.9	
산업재	장성 자동차	2333	9.6	■ 전국 승용차 연합회, 7 월 전국 승용차 판매량 119.18 만대로 YoY+14.9%. ■ 장성자동차 웨이지엔쥔 사장은 향후 차량 경량화, 스마트화, 엔진 효과 항상 등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2015 년까지 총 50 억 위안을 R&D 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지리자동차	0175	11.7	
	BYD	1211	1.8	
부동산	롱포 프로퍼티스	0960	-1.4	■ 중국 정부 부동산세 확대 시행 준비에 박차,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아직 미정. 국무원에서 비준한 항주시 부동산세 방안에 따르면 일인당 60 ㎡ 이하에 대해 면세, 일반 주택에 대해 거래가격의 4‰, 비주택에 대해 거래가격의 8‰ 징수.
	화룬토지	1109	-1.1	
	시마오 프로퍼티	0813	2.5	
에너지	남방항공	1055	0.4	■ 남방항공, 8 월 13 일부터 해남도 하이커우-청두-우루무치 항로를 개통할 것이라고 밝힘. 해남도를 방문하는 러시아, 테헤란 등 서아시아, 유럽 지역의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동방항공, 여객 수익 부진으로 상해-호주 케인즈 노선을 오는 13 일부터 2 개월간 잠정중단 하기로 결정.
	동방항공	0670	-2.5	
	국제항공	0753	-2.9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교통운수	중국남차	1766	2.7	■ 신화망에 따르면 철도총공사는 올해 고정자산투자 규모를 6,500 억 위안에서 6,600 억 위안으로 확대할 예정. 이 중 인프라건설에 대한 투자는 5,300 억 위안. 올해 1 월~7 월 철도 고정자산투자 규모는 2,617.45 억 위안으로 YoY+16%. ■ 중국철도총공사, 193 억 위안에 달하는 292,626 대 대규모 철도차량 입찰 시작.
	중국 철도그룹	0390	-2.1	
	중국 철도건설	1186	-2.1	
금융	중국 공상은행	1398	-2.4	■ 7 월 영업수익 6.42 억 위안으로 MoM-18.8%, 순이익은 2.75 억 위안으로 YoY+2.5%, 순자산 698.58 억 위안. ■ 농업은행, Union Pay 호북성 지사와 공동으로 모바일 결제수단인 '장 e 푸' 서비스를 제공. 해당 서비스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화물주문부터 결제까지 일체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국 농업은행	1288	-1.0	
	중신증권	6030	-2.7	
IT	넷드래곤	0777	1.8	■ ZTE 통신, 상반기 영업이익은 377.1 억 위안으로 YoY+11.57%, 2 분기 영업이익이 다소 하락했지만 하반기 4G 라이선스 발급에 따른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상해증권보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에서 적극적으로 5470-5725MHz 주파신청을 추진 중.
	레노버그룹	0992	5.2	
	ZTE 통신	0763	5.6	
통신서비스	차이나모바일	0941	-0.7	■ 차이나유니콤(0762.HK) 상반기 매출액 1,443.1억 위안으로 YoY+18.6%, 순이익 53.2억 위안으로 YoY+55%. ■ 신화넷 보도에 따르면 중국 차이나유니콤이 시분할방식-롱텀에벌루션(LTE-TDD) 4G 서비스 테스트에 돌입한다고 전함.
	차이나 텔레콤	0728	-1.3	
	차이나 유니콤	0762	3.7	
식품음료	Want Want	0151	-1.3	■ 발전개혁위원회, Biostime, Abbott, Meadjohnson, Friso, Dumex, Fontera 등 6 곳의 분유기업을 반독점범 위법 혐의로 6 억 6,87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Biostime 는 전년도 매출액의 6%, Meadjohnson 은 매출액의 4%; Dumex, Abbott, Friso 은 매출액의 3% 벌금을 부과.
	Mengniu Dairy	2319	-0.3	
	칭타우 맥주	0168	1.9	

Any Comment or News

-발전개혁위원회, 북경 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며 이외 무한, 심양 등 지에 10개 궤도교통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 조선업 구조조정 박차. 국무원, "조선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2013~2015) 발표. 신규생산량 통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지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구 있도록 지원

-주택건설부, 신형도시화 일환인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시범지역 선정. 북경경제기술개발구 등 103개 지역을 포함.

-EU-중국 태양광패널 분쟁 합의가 8월 6일부터 시행. 중국은 와트당 0.56유로의 최저 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신에 EU 측은 유럽 태양광 패널 연간 수요량인 15GW의 절반 수준인 7GW까지는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

투자전략팀

Strategist 김재호 CFA
(02)2009-7197
kimjh1@leading.co.kr

Quant Analyst 정정원
(02)2009-7068
jwjung@leading.co.kr

미국 담당 : 박지미
(02)2009-7059
jmpark1@leading.co.kr

중국 담당 : 최미나
(02)2009-7176
mncui@leading.co.kr

*©. 2013 **Leading Investment & Securities Co**. All rights reserved*